

# 함정에 빠진 두 전문가를 위한 ‘언어사회학’



- 《자서전들 쓰십시오》  
이청준 지음 |  
열림원 | 268쪽 | 값 7,800원
- 《강한 국가의 조건》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안진환 옮김 |  
황금가지 | 182쪽 | 값 12,000원

글 | 임동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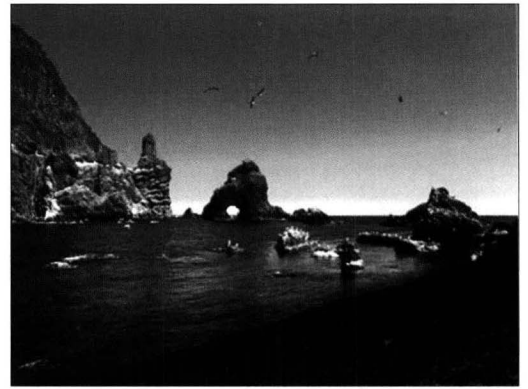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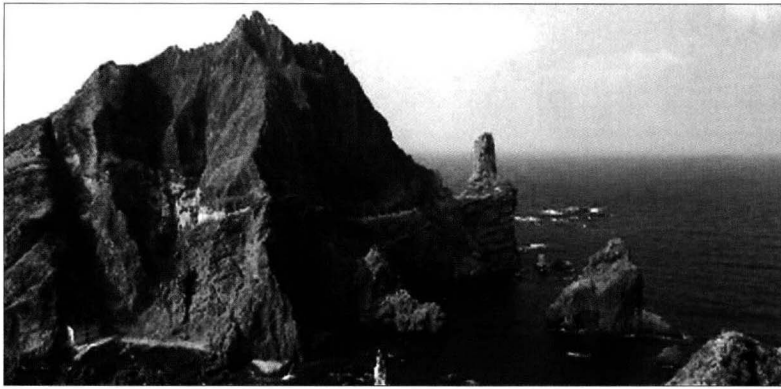
외교의 가장 큰 임무는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기대면 외교관은 협상의 고수 또는 달인이라는 말이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외교’라는, 지적 향취의 우산을 쓰고 있는 대사관에 무관과 정보원이 파견돼 있는 것은 외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다. 외교관 그런 만큼 전략의 영역에 속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3월은 한일관계가 뉴스의 초점이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문제는 그 진폭이 여느 해와 다르다는 것인데, 시마네 현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조례 제정과 주한 일본 대사의 ‘독도는 우리 땅’ 발언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에든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듯 시마네 현의 조례 제정은 일본 일부 지방의 보수적 움직임 중의 한 갈래다. 말하자면 우리네 어느 군현이 미국을 상대로 만지를 거는 차원으로 폄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마네 현의 만지를 우리네 식으로 치면 도표를 거쳐 정부 차원의 입장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아

야 하는데 한일관계의 축으로 볼 때 그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정립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단히 위험한 노릇은, 주한 일본 대사의 발언이다. 외교관의 발언인 동시에 그 발언을 주재국에서 했다는 점은 일본의 집요함을 엿보게 하는데, 핵심은 알다시피 ‘독도의 분쟁대상화’에 있다. 독도를 당장 수중에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분쟁 목록에 편입시킨 다음 훗날을 기약하자는 뜻이다.

훗날이란 언제인가. 하나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큰 헤게모니를 쥐었을 때이다. 국가의 힘을 빌려 잠재적 우군과 일본의 힘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이 한일간 분쟁 대상인 독도를 ‘일본 소유’로 등기 이전케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



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북한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었다는 요인을 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그것도 남한이 축이 되어 공동전선을 펴는 것을 중국과 일본은 바라지 않는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하나의 힘으로 묶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 남북한이 단일 공동체가 될 경우에 대비해 독도를 분쟁대상화하면 훗날, 경우에 따라서 일본은 중국을 끌어들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물론 중국은 훗날의 상황에 따라서 주사위를 던질 것이다. 이것이 국가간 외교 전략의 한 흐름이다.

독도가 한일간의 불씨가 된 와중에 역사학자 한승조 씨와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의 ‘말도 안 되는 말’이 터져나왔다. ‘일본 지배를 축복으로 알자’ ‘당할 상황이니 당했다’로 압축되는 그들의 말은 이런 말꼬리를 잡게 만든다. 일본 지배를 축복으로 알아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OECD의 최상위 그룹에 속한 나라들을 향해 ‘우리를 지배해 달라’고 간청해야 하지 않을까. ‘먹힐 만하니 먹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강자들에게 ‘우리를 짓밟아 달라’고 부탁해야 하지 않을까.

이들의 말은 떠도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서 기록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니 작가 이청준의 연작 소설 《언어사회학 서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작가 이청준은 이미 1970년대에 이 연작의 작품 속 주인공 지욱의 입을 빌려 영혼과 육체를 짓밟아 버린 유신 시대를 향해 이렇게 표현했다.

“사물과의 약속을 떠나버린 말, 실체의 옷을 벗어버린 말, 내용으로는 이미 메시지가 될 수 없는 말, 일정한 질서도 없이 그것들 스스로 원하는 형식으로 밖에는 남아 있을 수가 없는 말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쯤 되면 한승조 씨와 지만원 씨는 지금 우리에게 ‘육체의 말과 정신의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자유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말’, 즉 타락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나는 그들이 《언어사회학 서설》을 꼭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이 읽어야 할 책이 또 있다. 최근에 나온,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강한 국가의 조건》이 그것인데 세계의 석학들이 무릎을 탁 치곤 한다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정연한 논리를 보면 한승조, 지만원 씨도 무릎을 탁 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이다. 그 팩트 두 가지만 제시하면 이렇다.

첫째, 《강한 국가의 조건》은 “외부세력의 지원이 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설교한다. 미국이 점령군의 지위를 획득해 진주했던 쿠바 필리핀 아이티 멕시코 파나마 베트남 등이 그러한 실례에 속한다. 그렇다면 한승조 씨는 자신의 지론을 수정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 근대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에너지로서 근대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이다.

둘째, 《강한 국가의 조건》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국가의 면모를 갖췄으나 못 갖췄느냐는 점에서 다르다”고 전제, 이라크는 제대로 굴러가는 국가였으므로 미국의 대응 역시 달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에 기댄다면, 지만원 씨는 일본이 강제합병을 시도한 그 시기 우리나라가 나라 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책부터 다시 들춰봐야 할 것이다.

역사학자와 군사전문가는 그 특별한 영역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즐기만 더듬어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군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군사학적인 전례 비교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본主義’과 ‘역사의 도덕성’을 간과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들이 그런 함정에 빠진 것도 모른 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낸 점일 것이다. ■

● 이 글을 쓴 임동현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가에게》 등의 시집에 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